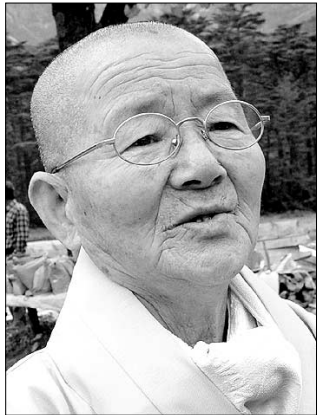


# 법기암서 출가 어언 60년

인터뷰 신계사와 인연 간직한 혜해 스님



방문길에 올랐다. 네 번째의 방북이니 만큼 첫 방문 때의 긴장감이나 낮은 감정들은 떨렸다. 때문인지 스님은 "다음번 방북 때는 내가 출가했던 법기암에 올라 보고 싶은데 가능할지 몰라"라며 조심스런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제는 절터조차 찾기 힘들어졌지만 스님은 60년 전 법기암 시절의 기억을 아직도 뚜렷이 간직하고 있었다. 스님이 신계사와 인연을 맺은 것은 해방을 1년 앞둔 1944년이다. 출가한지 1년 만에 해방이 되고 남과 북이 갈리면서 금강산 인근의 스님들과 함께 46년 10월에 남쪽으로 내려왔다. 그 와중에 자신을 사발 출가시켰던 은사 대원 스님과 일부 노장들이 법기암에 그대로 남았지만 이제는 생사조차 모른다.

지난 2001년 첫 방문 때 3층 석탑과 당간지주만 남은 신계사 터에서 홀로 108배를 울려, 보는 이들의 마음을 숙연케 했던 스님은 이번 복원 불사 입재법회에서도 "하루빨리 신계사가 복원되고, 우리 민족이 더 이상 다투지 말기를 바란다"며 애절한 심정을 밝혔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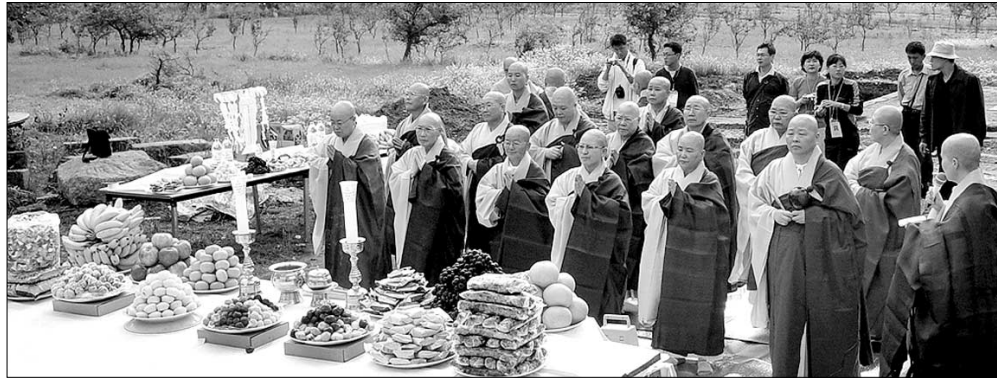
"생전에 다시 못갈 곳이라 생각했던 곳을 찾아갔는데, 기쁜 마음을 어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9월 23일 신계사 복원불사에 비구니 대표로 현장을 다녀온 경주 천경립선원장 혜해(84·사진)스님은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올해는 혜해 스님이 24세 꽃다운 나이에 신계사 산내암자인 법기암에서 출가한지 만 60년이 되는 해다. 그만큼 스님에게 이번 금강산 방문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사실 스님의 방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남북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스님은 벌써 4번째 신계사

# 금강산 신계사 복원불사 입재 민족 화해 주춧돌 기원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대표단 19명 등 50여명 참석



전국비구니회 스님들은 불사의 원만성취를 기원하는 입재식을 9월 23일 금강산 신계사 복원현장에서 봉행했다.

금강산 신계사 대웅전 복원불사가 오는 11월 19일 낙성식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대표단(단장 수현이) 9월 23일 신계사를 방문, 불사의 원만성취를 기원하는 입재식 및 위령제를 봉행했다.

이번 입재식에는 흥륜사 천경립선원장 혜해 스님을 비롯해 수현(전국비구니회 부회장)·경희대구 서봉사 주지·법공(부산 관음정사 관음선원장)·보각의정부 석림사 주지) 스님 등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대표단 19명과 현대아산 측 관계자, 남북 기술진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비구니회 대표단 스님들은 입재식에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남북이 함께 진행되는 신계사 대웅전 복원 불사의 원만한 성취를 기원하며, 이를 통해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앞당겨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비구니회 대표단은 낙성식 때까지 원만한 공사

진행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입재식에 이어 진행된 위령제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금강산 지역에서 직접 준비해 간 공양물로 손수 영가 천도단을 차리고 전통불교의식에 따라 1시간 여 동안 위령제를 봉행했다.

비구니회 대표단 단장 수현 스님은 "신계사 복원은 분단된 민족의 문화를 하나로 이어주는 역사적인 일이자 금강산을 불교성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대작불사"라며 "2천만 불자들이 신계사 복원불사의 원만 회향을 위해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 원경 스님의 중국 선수행 체험기

### 간화선 전통 맥 끊겨

사회통합 도구로 불교 적극 활용 인상적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법정은) 조계종 교육원과 공동으로 제4회 韓·中 선수행체험행사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9박 10일간 실시했다. 체험단의 일원으로 생생한 중국불교의 현주소를 돌아보고는 송광사 강원 학강 원경(사진) 스님의 체험후기를 정리했다.

나는 이번 행사에 참가하기 전부터 간화선의 전통이 완전히 단절됐다는 중국 수행의 실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 하고 싶었다. 그러나 실제 10일 동안 내가 겪은 것은 '중국 선수행체험'이라기보다 그냥 '중국불교체험'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었다.

중국 현지에서 마주한 선의 전통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 모습이었다. 일부 선수행을 했던 곳을 가보았지만 열 불 수행이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조동종(목조선) 계열의 사찰(포전 석실암사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정토 열불을 하고 있었다. 북주 서선사에서는 선방을 보여 달라고 했더니 현재 창고로 쓰고 있어 보여 줄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문화혁명 이후 불교의 정신문명도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스님에게 한국에는 송대 이래의 간화선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중국도 간화선의 전통을 복원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참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조차 없는 상태여서인지 아무런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중국불교를 체험하면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각 성(省)마다 설치되어 있는 불학원(우리의 강원을 방문한 것이다. 최근 민족문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정부는 사회통합의 도구로 불교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불교의 육성, 지원에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다. 그에 따라 각 성마다 불학원을 세워 수준 높은 승려양성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었다. 또한 해외 불교를 배우기 위한 노력도 대단해 수년간 내가 유학했던 스리랑카에서도 중국정부지원을 받는 장학생이 30여명이나 공부하고 있었다.

중국 불학원은 총 9년제로 각각 3년과정의 중반반(中專班·기초-고졸), 대전반(大專班·기본-대졸), 사자반(師資班·전문-석사과정)을 거쳐 승려를 양성하고 있었다. 하루 5시간을 강의하는데 수업시간 이외에도 학인들의 공부하는 모습에서 상당한 열의가 느껴졌다. 첫 번째 3년 기초과정에서 비구계를 받기 위한 승가고사를 치를 수 있는 기회가 단 한번 밖에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최초 기본 3년간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계율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강도 높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우리 강원현의 현실에 비해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대에 선의 전통이 쇠락하였고, 중국이 공산화 됐던 70-80년 동안 끊겼던 법맥을 잇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문서와 자료로 남아있는 불교의 전통, 근본 대승불교의 각 등지에서 살아있는 불교를 수혈 받으면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어 향후 한 세대가 양성될 2-30년 후엔 한국불교를 능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학인들의 출가 연령이 비교적 어리고, 우리처럼 간경 때 글 새김을 해야 하는 과정 없이 경전을 바로 읽고 이해하는 중국학인들이 수업진행은 확실해 결림이 없었다. 새로운 도약과 승비를 준비하고 있는 중국불교의 무궁한 발전가능성을 체험한 열흘이었다.

정리·조용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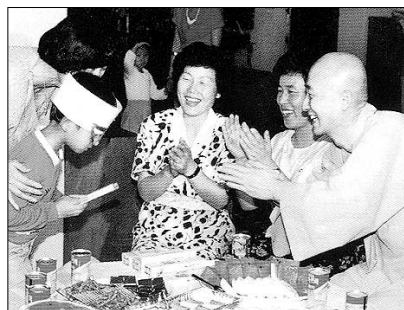
# 교육·출판 30년 외길 밝혀온 '불광회'

도심포교 선구역할 한몫 신도교육 모범으로 꼽혀

1974년 서울 종로구 대각사에서 "반야사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성공·행복·발전이 이루어 우리와 사회의 광명화를 도모한다"는 '불광선언'을 통해 한국불교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이끌어온 불광회(佛光會·회장 지홍)가 지난 9월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신도교육의 모범을 보이며 정규신도반 1만 명이나 되는 대규모 도심포교당을 일구어온 불광회의 성장은 이후 다른 도심포교당들의 포교방법 개발, 사찰 운영방법, 매체의 개발과 운영, 신도조직의 구성 방법 등에 깊은 영향을 미쳐왔다.

불광회는 창립 이듬해인 75년 '월간 불광'을 통해 인연을 맺은 불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 '불광법회'를 시작했다. 이후 불



교육·수행·문화를 통한 한국불교의 현대화를 이끌었던 광덕 스님.

광법회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법등'이라는 신행 결사 조직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불광운동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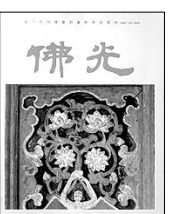
불광회는 82년 송파구 석촌동에 불광사 법당을 준공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시기 불광회는 범종조직을 세대와 지역별로 확대하면서 신도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나갔다. 늘어난 신도를 교육, 수행, 문화로 통해

사람 운영의 주체로 내세웠던 것 역시 불광회의 성공에 큰 원동력이 됐다. 80년대 불광회는 불광유치원 개원, 불광출판부 설립, 불광교육원을 개원하는 등 질적·양적으로도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1999년 광덕 스님 열반 이후부터 불광회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조직의 활력을 불어 넣고, 사회적 변화를 따라 갈수 있는 불광회의 새로운 활동방향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불광회는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성수·우봉·고산 스님 등 한국을 대표하는 고승 7명을 초청 불광사 보광당에서 대법회를 열고 있다. 또 10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참선, 간경, 염불 등 한국불교의 수행법을 대표하는 각계의 선지식을 초청 '생활속의 불교 수행'이란 이름으로 특별강좌를 열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불자들에게 바른 수행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02)420-3200 www.bulkwang.org

## 창간 30년 맞는 월간 '불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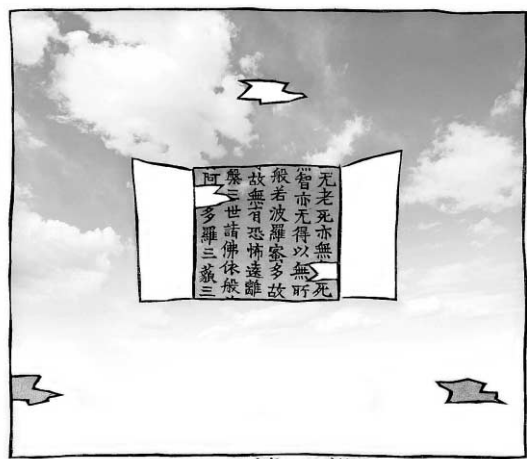
1974년 11월 창간한 '월간 불광(이하 불광지)'은 당시 불교계 매체라고는 각 종단의 기관지가 고작이던 시절, 전법과 신도교육, 교양정보를 목적으로 발행돼 불교계 전체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서울, 고안 스님이 창간 총사퇴, 경봉 스님이 휘호를 내렸을 만큼 창간 초 불교계의 기대와 성원이 컸던 불광지는 불광회의 포교이념을 전파하면서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편집해 큰 호응을 얻었다.

불광지는 각종 불교용어와 의식을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는 등 대중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안목을 일깨워 주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렇게 해서 1994년 제3회 문공부 선정 우수잡지로 선정되고, 79년에는 불광출판부를 설립, 바라밀총서, 선문총서, 불광불학총서 등 200여종의 다양한 기획 시리즈를 발간해 현재까지 불교 문서포교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30년동안 약 600만부를 찍어낸 불광지는 오는 11월 지령 361호를 발행한다.

조용수 기자

# 불기 2548 선찰 대본산 금정산 범어사 개산 문예대제전

문없는 스님을 열다



## 천연 자비등 밝히기 불사 접수안내

- ◆기간 : 10월 9일 ~ 16일까지
- ◆동참금 : 1인 1등 1만원. ◆접수처 : 부산은행 전지점
- ◆문의처 : 051)508-3122, 3636

2004년 10월 14일(목) ~ 17(일) / 범어사

주최: 대한불교 조계종 제14교구 본사 선찰 대본산 금정산 범어사, MBC 부산문화방송  
 주관: 범어사 개산문예대제전 평행위원회, 범어사 신도회 진행: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  
 후원: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문화관광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부산은행,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부산독립영화협회, 세계 금강승 불무도 협회, 부산광역시 불교 신도회, 사회복지법인 범어사, 부산불교 실업인회, 부산불교 거사위원회, 부산광역시불교 연합회  
 문의: 梵魚寺總무소 ☎ 051)508-3122~7

14(목) 모심의날	15(목) 섬김의날	16(목) 다짐의날	17(목) 깨달음의날
영산재 / 대웅전 앞 발우공양 / 원음로 길놀이 / 매표소 ~ 대웅전 의상대사 개산대재 / 대웅전 앞 저녁예불 / 대웅전 개막 점등식 / 대웅전 앞 집단신명 퍼포먼스(타오 공연) / 박물관 앞무대 산사 영화제 / 박물관 앞 무대	다비시 시연 / 범어사 제2주차장 발우공양 / 설법전 경로잔치 한마당 / 박물관 앞 무대 저녁예불 / 대웅전 점 등식 / 대웅전 앞 산사 영화제 / 박물관 앞 무대 이은미·웅산 콘서트 / 박물관 앞 무대	발우공양 / 설법전 백일장 사생대회 / 범어사 경내 불무도시범 / 박물관 앞무대 저녁예불 / 대웅전 점 등식 / 대웅전 앞 강미리 춤 공연 / 박물관 앞 무대 산사 영화제 / 박물관 앞 무대	회향식 - 아단법석 / 복문산장

- 체험행사 : 발우공양 · 선차시연 · 사찰음식시연 · 템플 스테이 · 달마그리기 · 등 만들기
- 전시행사 : 이철수 판화전 · 일본 국보가 된 조선사찰 재현전 · 범어사 옛사건전 · 산사에서 만난 야생화전
- 부대행사 : 디카 콘서트 · 페이스 페인팅